엔텔스

069410 탐방노트 | 스몰캡

NR

실체는 실적이 증명한다

2014. 02. 17

현재주가(02/14)	13,200원
투자의견	NR

Analyst
김승회
02 369 3747
kimsh9@dongbuhappy.com

13년 양호한 실적으로 마감: 엔텔스는 공정공시를 통해 13년 별도기준 매출액 609억원(+12.9%YoY), 영업이익 75억원(+6.0%YoY), 순이익 70억원(+4.0%YoY)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4Q13만 보면 매출액 217억원, 영업이익 28억원, 순이익 25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액 달성에도 성공했다. 다만, 양호한 외형성장에 비해 이익증가가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은 4Q13에 반영된 성과급 등 때문이며, 13년 실제 영업이익은 9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엔텔스는 13년 M2M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인력충원(12년말 162명 → 3Q13 192명)을 진행했고, 이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상승으로 작용했다. 다행히 인력증가가 수주증가로 이어지면서(수주잔고: 12년말 42억원 vs. 3Q13 192억원) 성과급 지급에도 불구하고, 13년은 12%대(vs. 12년 13.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14년은 아직 매출에 기여하지 못한 신규 채용 인력들이 M2M 등 신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외형성장뿐만 아니라 수익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M2M 등 신사업이 14년 성장 견인: 14년 실적은 별도기준 매출액 758억원(+24.4%YoY), 영업이익 107억원(+42.6%YoY), 순이익 92억원(+31.7%YoY)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SKT向 매출이 꾸준한 가운데 M2M 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매출처도 MVNO사업자와 해외 통신사, 공공기관과 다양한 산업체로 다각화될 전망이다. 우선 SKT向 매출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라 네트워크 정책/제어 솔루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유무선 통합 등 다양한 요금체 출시에 따른 과금/빌링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수요도 기대된다. 13년 부진했던 MVNO向 매출은 알뜰폰 가입자수 증가로 성장이 기대되고, 지난해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했던 말레이시아 셀콤向 매출도 지난 12월 서비스 론칭에 따라 14년에는 매출에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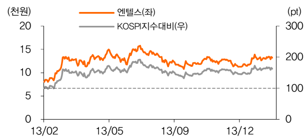
Investment Fundamentals (IFRS별도)

(단위: 억원, 원, 배, %)

FYE Dec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224	204	381	460	540
(증가율)	-24.3	-8.9	86.8	20.7	17.4
영업이익	-36	-8	38	67	71
(증가율)	적전	적지	흑전	76.3	6.0
순이익	-39	-37	44	57	67
EPS	-596	-566	679	875	1,019
PER (H/L)	NA / NA	NA / NA	6.0/2.6	7.1/2.4	7.6/4.7
PBR (H/L)	1.2/0.2	1.2/0.4	1.3/0.5	1.5/0.5	1.5/0.9
EV/EBITDA (H/L)	NA/1.3	NA/15.9	2.8/NA	2.7/NA	2.6/NA
영업이익률	-16.2	-3.7	9.9	14.7	13.1
ROE	-17.4	-19.8	23.2	24.0	22.0

Stock Data

52주 최저/최고	8,030/15,800원
KOSDAQ /KOSPI	523/1,940pt
시가총액	911억원
60日-평균거래량	55,846
외국인지분율	0.1%
60日-외국인지분율변동추이	-0.6%p
주요주주	심재희 외 8인 29.0%



주가상승률	1M	3M	12M
절대기준	1.5	8.2	64.2
상대기준	-0.5	6.0	61.0

주: 08, 09, 10, 11년 요약 재무 데이타는 WiseFn에서 IFRS 회계기준으로 가공한 자료이므로 실제수치와 달라질 수 있음

동부증권

Analyst 김승회
02 369 3747
kimsh9@dongbuhapp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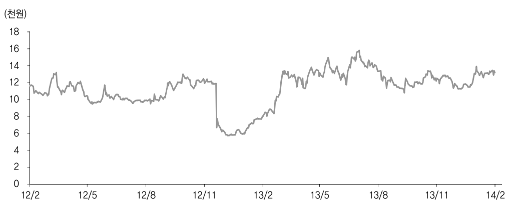
M2M/사물인터넷의 기술력과 레퍼런스 모두 확보: 14년 엔텔스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M2M/사물인터넷 관련 플랫폼 사업이다. 엔텔스는 이미 앞선 기술개발과 공공기관에서의 레퍼런스를 통해 M2M/사물인터넷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엔텔스는 지난 12월 '2013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 대상' 시상식에서 N-ISE(nTels Integration Service Embedded) 플랫폼을 통해 장관상을 수상했다. N-ISE 플랫폼은 의료기기, 가전제품, 통신기기와 같은 각종 기기를 원격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로서 데이터 수집, 표준화, 전동, 원격 디바이스 관리, 보안 등의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M2M/사물인터넷 사업의 핵심 기술로 원격 주택 모니터링/제어, 원격 의료지원, 자동차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당연히 엔텔스는 2010년에 설립된 One-M2M의 전세계 199개 회원사의 하나로서 M2M 국제표준 설립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미 13년 매출액 609억원에서 100억원 가량이 M2M 플랫폼 매출이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 구축(13년 수주액 26억원)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범죄자의 전자발찌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으로 성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상청 그린IT서비스나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등도 엔텔스의 M2M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M2M 서비스이다. 14년은 공공사업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으로의 M2M 플랫폼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당장 말레이시아 셀콤에 제공한 M2M 플랫폼은 1) 전력원격검침, 2) 텔레매틱스, 3) 모바일 결제 등과 같은 응용분야에 적용된다. 엔텔스는 이미 국내 대기업 등과 M2M 사업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응용 산업분야도 전자, 통신에서 벗어나 유통, 자동차, 중공업, 의료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14년 엔텔스의 플랫폼 관련 매출은 지난해보다 60%이상 증가한 162억원으로 추정하지만 시장 성장이 빨라진다면 200억원 이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엔텔스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14/02/17	NR				